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able of Contents

06 유네스코 현장

10 발간사

14 Chapter ①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20 Chapter ②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 22 외교부
- 30 교육부
- 36 문화체육관광부
- 46 환경부
- 54 국가기록원
- 58 문화재청
- 64 제주특별자치도
- 70 한국국제협력단
- 7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2 Chapter ③

코로나19 시대, 유네스코와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92 부록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목록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헌장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발효일 1946. 11. 4.



היות שרוח האדם היא הורחן של המלחמות, יש לבנות בה את ביצורי השלום.
لما كانت الحروب تتولد في عقول البشر، فبني عقولهم يجب أن تبني حصون السلام.

Les guerres prenant naissance dans l'esprit des hommes, c'est dans l'esprit des hommes que doivent être élevées les défenses de la paix.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战争起源于人之思想，故务需于人之思想中筑起保卫和平之屏障。

Puesto que las guerras nacen en la mente de los hombres, es en la mente de los hombres donde deben erigirse los baluartes de la paz.

चूँकि युद्ध लोगों के मन में शुरू होते हैं, लोगों के मन में ही शान्ति के दुर्ग खड़े करने होंगे।

Le guerre avendo origine nello spirito degli uomini, è appunto nello spirito degli uomini che devono essere innalzate le difese della pace.

NASCENDO AS GUERRAS NO ESPIRITO DOS HOMENS, É NO ESPIRITO DOS HOMENS QUE DEVE ERIGIR-SE A DEFESA DA PAZ.

Мысли о войне возникают в умах людей, поэтому в сознании людей следует укреплять идею защиты мира.

Commissariat général des Organisations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 Commissaria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평화의시대



발간사

금년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이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유네스코의 회원국이 된 지 불과 11일 만에 6.25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후 유네스코는 우리나라 교육·과학·문화 분야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이러한 도움은 우리나라의 전후 재건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여,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수혜국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주요 공여국입니다.

유네스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 사업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 환경, 문화, 유산 분야 등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공여주체들은 유네스코와 손을 잡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기를 희망하고, 유네스코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와 ‘자발적 기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기여가 유네스코 사업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우리 공여주체들의 분야별 사업들이 유네스코의 조직 목표와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여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이번 책자를 통해 한국과 유네스코가 함께 이행 중인 대표적 자발적 기여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간사

유네스코의 사명은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원대한 설립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유네스코의 협력 역사는 이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유네스코의 상위 공여국으로서, 정류분담금뿐만 아니라 자발적 기여를 통해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 및 유네스코 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자의 발간을 지원해 주신 외교부와 작성에 참여해 주신 모든 공여기관 및 유네스코 전략기획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자를 통해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높이고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Chapter ①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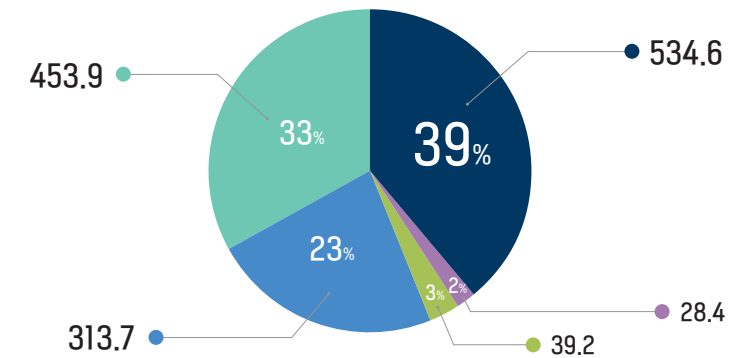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유엔 전문기구 중 하나로, '유네스코 헌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문화·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의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예산체계 ¹

유네스코의 예산체계는 회원국들의 정규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으로 편성된 정규예산과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등으로 편성된 비정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 - 2021 회기에 유네스코의 전체 예산은 미화 13억 2911만 5300달러입니다. 이 중 정규예산은 총 미화 5억 3464만 7000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정규분담금은 동 정규예산의 2.926%를 차지합니다. (193개 회원국 중 10위)

재원별 2020 - 2021 예산 (단위: \$M)



- 정규 예산
- 자발적 기여
- 일반 관리비 특별계좌
- 수익 창출 기금
- 갭(Gap)

1. 출처: 유네스코 2020-2021 사업예산 40/C5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한 국가 내 부처·지자체·기관 등의 공여주체가 정규예산 이외에 유네스코의 비정규예산에 기여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통상적으로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Voluntary Contribution)'라고 합니다.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의 종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는 공여 방식 및 의사결정 권한에 따라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① 신탁기금
- ② 다자공여 특별계좌
- ③ 정규예산 추가 지출계획 지원
- ④ 전문가 파견·직원 대여 등

특히 이 중에서 지정 기여(earmarked contribution)에 해당하는 '신탁기금'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신탁기금이란 공여주체가 유네스코와 합의하에 선택한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을 말합니다. 신탁기금은 공여주체가 사용자 지정, 기금 사용, 잔액 처분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여타 자발적 기여 방식과 구분됩니다.



- ① 1950년 제5차 유네스코 총회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당시)
- ② 오늘날 유네스코 총회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 예산은 미화 2228만 9650달러입니다.² 2018 - 2019년 기준, 한국은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공여국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2. 출처: 유네스코 투명성포털(<https://opendata.unesco.org/>)



Chapter ②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의 일부를 선별하여 제시합니다.

외교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요르단 취약계층 직업 교육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요르단



사업기간 : 2016년 - 현재



예산 : 미화 400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아랍 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과 직업훈련, 산업계의 수요 간 연계가 떨어지고, 창업 준비가 된 청년인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³의 중점 지원 분야이며, 특히 한국은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교육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학업이 단절된 시리아 난민 및 요르단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들이 향후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UN 인도자원조정실이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이란 자연재해와 분쟁의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출처: 외교부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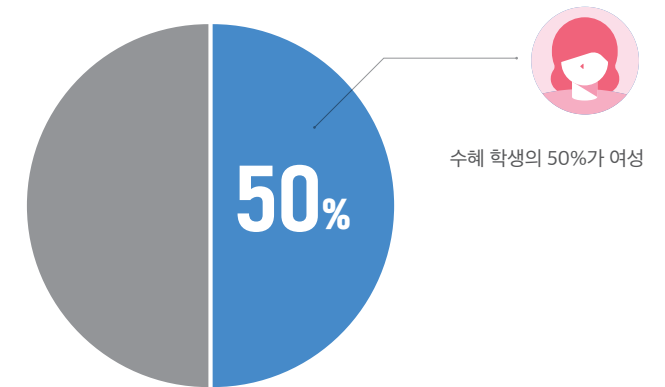
연혁

- 2016 유네스코-외교부 간 협약 체결, 직업훈련 사업 시작
- 2017.11 1기 수료생 졸업식 개최
- 2018.5 2기 수료생 대상 사업 착수식 개최
- 2019.2 2기 수료생 졸업식 개최
- 2019.3-12 3기 수료생 대상 교육 진행
- 2019.12 4기 사업 약정서 체결

성과

175 시리아 난민(명) **75** 요르단 취약계층 청년(명)

- 동 사업은 매년 시리아 난민 175명과 요르단 취약계층 청년 75명(총 250명)을 대상으로 토목공학, 측지공학,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사무관리 및 경영, 인적자원 관리,接客업, 미용 등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며, 수혜 학생의 50%가 여성입니다.



- 2018년에는 250명, 2019년에는 228명이 동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2019/2020 과정의 경우 208명이 졸업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한국과 유네스코 간의 꾸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요르단 내 취약계층 및 시리아 난민 청년들에게 '시장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동 사업은 요르단 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어 학업 및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리아 난민 청년들에게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한편, 요르단에서는 결혼, 임신, 노동시장 진출 장벽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혜 학생 비중의 50%가 여성에게 할당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



저의 선택과 노력이 자랑스럽고, 이를 바탕으로 신부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미용 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요.

요르단 국적 여성 Rand Abdallah(21세)는 Luminus 기술대학(동 사업 시행 기관)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해 2019년 5월부터 1년간의 정규 과정을 통해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관리 등 미용 전문 기술을 취득하였습니다. Rand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용실이 운영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미용 교육과정 이수 등 자기계발을 진행하였고, 2020년 4월에 암만 시내 신규 미용실 개설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라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출처: 2020년 4월 25일, <Jordan Times>

직업교육을 통해 Luminus 기술대학에서 배운 전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계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국적 남성 Abdullah Abu Alhawa(20세)는 동 사업을 통해 2018년 2월부터 1년간의 정규 과정을 수료⁴ 하고, 암만 시내 식품산업 공장 두 곳에서 현장 실습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외 구직신청을 통해 네덜란드 JBT Foodtech사에 정비기사로 취직해 2019년 4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수출용 조리기구(food processing machines)를 제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2019년 11월 17일, <Jordan Times>

내전 및 주변 환경, 경제적 요인 등으로 학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동 사업의 2기 사업 착수식에 참석한 시리아 학생 2명 및 요르단 학생 1명은 소감 발표를 통해 "내전 및 주변 환경, 경제적 요인 등으로 학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처: 2018년 5월 14일 사업 착수식 참석 학생들의 소감 발표

4. 동 프로그램은 수료 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서(BTEC Level 3)를 취득할 수 있으며, 수혜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요르단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직이 가능함

바미얀 문화센터 건립 사업 3기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아프가니스탄



사업기간 : 2019년 12월 - 2021년 11월(완공 예정)



예산 : 미화 349만 6272불

배경 및 주요 내용

아프가니스탄은 장기간 정치적 불안과 불안정한 치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를 통한 평화와 국가통합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는 3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문화센터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었으나 탈레반 테러에 희생된 바미얀 석불 인근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상 동 사업에 대한 아프간 정부 및 바미얀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그만큼 한국 정부의 지원 가시성도 높습니다.

연혁

2013.11	바미얀 문화센터 건립사업(1기) 지원 결정
2015.12	센터 건물 설계도 결정
2016.9	교육관 건축 등을 위한 추가 지원(2기) 결정
2016.12	문화센터 본건물 기초공사 완료
2019.6	추가 지원(3기) 결정
2020.1	본건물 88%, 워크숍 건물 95%, 공원(아프간 정부 재정 지원) 82.4% 완료

기대효과

- 동 사업을 통해 건립 중인 바미얀 문화센터는 역사적 사료와 민속유물 전시뿐 아니라 각종 회의 개최, 지역주민을 위한 수공예품 기술 전수,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의 고용기술 전수 등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동 사업은 전 세계 관광객과 아프가니스탄 국민 및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거점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동 사업에는 아프간 정부, 바미얀 시, 바미얀 대학교, 유네스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연·전시 개최 및 카페테리아 운영 등을 통한 수입 창출과 아프간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동 문화센터를 지속가능하게 운영 및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1단계: 보츠와나, DR콩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2단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사업기간 :

1단계: 2011년 - 2016년 / 2단계: 2016년 - 2020년



예산

1단계: 미화 1000만불 / 2단계: 미화 1000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개발도상국들의 한국에 대한 원조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0년에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가 유네스코를 통해 한국이 아프리카의 직업기술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조직의 '아프리카 최우선 지원 원칙'과 2010년에 새롭게 수립한 '직업기술 교육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을 추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보츠와나, DR콩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수혜국의 교육정책 및 제도 발전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가적인 지원 요청에 따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2단계 사업(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을 추진해 해당 지역 내 직업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내용 교육과정 개발, 교사연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내용 교육과정 개발, 교사연수, 기능경기대회시스템 구축

연혁

- 2010 1단계 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 2011 1단계 사업 지원대상국 현지실사 실시, 유네스코에서 1단계 사업 5개년 실행계획(안) 수립, MOU체결
- 2011-2017 1단계 사업 완료
- 2015 2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실시 및 지원 국가 선정
- 2016- 2단계 사업 진행 중

성과 (1단계 사업)

- 동 사업은 수혜국 내 직업기술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동시장과 산업체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직업기술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현장 적용력을 높였습니다.

이전에 개발된 직업교육과정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한국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교육과정은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했습니다.

출처: DR콩고 현지 참여자 인터뷰

잠비아는 BEAR 프로젝트에 의해 중등교육과정에 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시장 분석과 학습자료 개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환경적, 정치적 수요를 반영하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동시장 분석과 관련해서는 643개의 여행업과 건설업 회사를 대상으로 고용, 직무능력 격차, 구인정보, 업무만족도, 교육, 훈련에 관련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학습자료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벽돌공사·미장, 목공·소목, 전기·건설, 금속가공·용접, 배관공사, 관광업에 대한 6개 교재가 만들어졌고, 곧 공식 교과서로 활용됩니다.

몹바 카뎀파 주한 잠비아 대사

출처: 2017년 6월 17일,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67004->)

- 또한, 동 사업은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기술적, 교수법적 노하우 및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직업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아울러 정부부처, 직업기술교육기관, 산업체 간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관리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실행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관리자들의 행정 역량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특히, 신탁기금 특성상 유네스코가 사업 추진을 주도했으나,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참여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잠비아의 경제 상황은 한국의 70년대와 비슷하죠.
한국의 직업교육 노하우를 적용한다면 잠비아도 한국처럼 발전할 거예요.**

케네스 시칭가 잠비아 직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훈련청 과장

출처: 2016년 8월 29일, <서울신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9027016>)

- 한국의 선진 사례 및 방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한 것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들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자생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 점이 동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선진국은 자국의 방법을 이식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했으나
한국 전문가들은 보츠와나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으며,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동반자로서 자신감을 배양했습니다.**






출처: 보츠와나 현지 참여자 인터뷰

**선진국의 교육과정 개발 접근 방식은 이론과 기술이 매우 치밀하지만, 현지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화하기에 매우 벅합니다. 반면 한국식 교육과정은 자국 모델을 강요하지
않고 현지인들과 끊임없이 상의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현지에 적합합니다.**

무암바 카뎀바 세브랭 DR콩고 교육고문 겸 연구원

출처: 2016년 6월 9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6/411326/>)

수혜국별 주요 성과 요약

국가명(지원단계/분야)	주요 성과
 보츠와나 고등 / 관광 경영, 호텔 경영,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 분야 3개의 학위 프로그램 승인 완료 ● 쿼터제에서 2년 학위과정으로 전환하고, 2014년 이후 총 200명 이상의 학생이 가보로네 기술대학, 프랜시스타운 직업교육기술대학 등록 ● 각 학위 프로그램별 평가 실시(2015),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 확정 ● 103명의 교사에게 교수법, 행정 및 관리, 전문기술 관련 직무연수 실시
 말라위 중등 + 고등 / 건축 · 목공, 농산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공, 건설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 산업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 노동시장 분석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역량 확보 ● 릴롱웨 기술대학을 직업교육, 교사교육의 중점학교로 장려 ● 교수법, 전문적 기술, 행정 및 관리 역량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실행(140명)
 잠비아 중등+ 평생 / 관광,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9학년 학생 중 2200명은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교육 시험을 모두 응시 ● 마자부카 학교와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무자격자 19명 자격증 취득(2015) ● 분야별 교사 270명 연수 완료 및 매뉴얼 개발
 나미비아 중등 이후 / 목공, 공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공, 공정관리 자격제도 개발 및 자격인증체계 등록 ● 2015년 국제기능경기대회 처녀출전 및 2016년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향후 전국대회는 격년으로 개최 예정 ● 직업교육과정 개발부서의 신설로 지속적인 역량개발 유도 및 교사연수 실행 ● 교수법, 행정, 목공, 공정관리, Auto CAD 교사 연수 완료(92명)
 DR콩고 중등 / 금속 건축, 실내 전기 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건축, 실내배선 관련 교육과정 및 8개의 교과서 개발 ● 산학협력, 학교, 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해 5개 직업교육학교 발전계획 수립 ● BEAR 사업에서 습득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법을 활용해 타 과목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중(10개 교과서 기획) ● 교사 역량 개발 연수(149명), 장학사 및 관리자 연수 완료(73명)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라오스, 르완다, 몽골,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베트남, 우간다, 우즈벡,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사업기간 : 2007년 - 현재



예산 : 270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문화 분야의 최초 국제규범인 「2005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문화창의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 도모'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유네스코와 MOU를 체결하여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신탁기금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05 유네스코 문화 분야의 최초 국제규범인 「2005 문화다양성 협약」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 2006 한국 정부-유네스코 MOU 체결
- 2007 - 신탁기금 출연

성과

총 14개국
21개 사업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명
2008 - 2010	베트남과 몽골 정책 실행 역량 강화	베트남 전통공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몽골 몽골의 문화원형 디지털화 지원
2009 - 201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예산업 지속성 강화	카자흐스탄 공예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 강화 우즈벡 전통 수공예품 보호와 여성 공예인 지원
2011 - 2014	몽골·베트남·라오스 창의사업 지속성 강화	몽골 공예산업 강화 베트남 광남지역 공예마을 관광 진흥 라오스 문화창의산업 기초체계 연구 및 구축
	부르키나파소 문화산업 육성	부르키나파소 음악산업 진흥
2015 - 2018	몽골·베트남·우간다 창의산업 지속성 강화	몽골 문화창의산업 진흥정책 및 전략개발 -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문화정책 수립 베트남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한 창의산업 전략 시행 지원 - 문화산업을 위한 국가전략 및 종합 시행계획 개발 우간다 공예문화산업 발전 지원 - 문화 분야 종사자 157명(75% 여성)에 사업 경영 및 마케팅기술 연수
2016- 2019	라오스, 우즈벡, 르완다 문화창의산업 강화	라오스 정부, 시민사회 및 문화창의적 민간부문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 커뮤니케이션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 우즈벡 영화산업 발전 및 진흥 지원 - '17 - 18년 청년전문가 75명 영화·다큐멘터리 시나리오 작성 및 제작 연수, 다큐멘터리 8편 제작 르완다 예술가, 문화전문가 및 정부부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여 - 문화전문가 및 기관 간 역량 평가 실시,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연도	사업명	사업명
2017 - 2019	아태지역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위한 문화창의 산업 발전 역량 강화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 워크숍 계기 참가자 간 교류 촉진 및 유네스코와 향후 협력 장려, 신청자 약 200명 중 17개국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 32명 선발 파키스탄 창의기업가 역량 강화 및 문화창의산업 중요성 인식 강화 - 창조사업가 대상 정책을 통해 문화지도 작성, 연수워크숍, 시민참여 지원 방글라데시 시각예술(사진)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 - 정책 원탁회의, 특정대상 워크숍, 사진가들을 위한 연수, 사진 포럼 개최
2020 -	아세안 지역 창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아세안 문화정책 공무원 역량 강화 태국 문화창의산업 부문 정책 활성화 지원 -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태국의 창조 부문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량개발 지원 인도네시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책 모니터링 지원 -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지원 및 역량개발 제공
2020 -	중앙아시아 영화산업 강화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역량 및 지역 네트워킹 강화

신탁기금의 성과

- 문체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창의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2007년부터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The Korea Funds-In-Trust, 이하 신탁기금)을 진행해왔습니다.
- 문체부의 신탁기금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문화창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미화 2조 25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0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개발도상국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 마케팅, 회계 교육 워크숍 및 선진 국가 방문 연수를 제공하여, 문화창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

둘째, 개발도상국 내 민·관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문화 정책이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발도상국 내에서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체계가 잘 운영되어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셋째, 개발도상국이 문화 정책에 대해 관리·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관리·평가는 정책의 효과성·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 향후 더 나은 문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에 개발도상국이 문화 정책의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시대, ‘문화’ 분야 도전과제

2020년 1월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면 문화·예술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연·전시는 취소되는 등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비대면 공연·전시가 활성화되는 등 비대면 문화활동은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 및 비대면 문화활동의 확산은 문화 분야에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비대면 문화 수요에 대한 적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 소비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공연·전시의 취소 및 연기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 공급이 줄어, 문화·예술 생태계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비대면으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일부 분야(웹툰, 게임 등)에 한정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창작자들의 온라인 진입을 지원하고, 새로운 예술 창작 실험과 도전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른 디지털 문화 격차의 완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 향유는 점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75만 명의 관객이 각자의 안방에서 시청한 한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문화를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비대면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는 일부 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가져올 수 있기에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7.5%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월 8일자 <뉴욕 타임즈>는 “미국인 1/3이 코로나19로 외로움이 심화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1인 가구 증가로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서적 치유, 소외계층의 문화 체험 확대 등으로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경기연구원, '20.4월)

넷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활용의 조화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기에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 조치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화하되,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문화' 분야 자발적 기여 사업의 가치

문화창의산업은 개발도상국에게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입니다.

「문화다양성협약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2조 25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0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상에서 재생산되고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창의산업은 변화된 비대면 문화·예술 환경에서 더욱 유망한 산업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신탁기금('17 - '19년)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영화산업 종합분석 연구서 출간, 교육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재정적 한계로 자국 문화창의산업 분야의 피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이 늘어나면서, 신탁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신탁기금이 비대면 문화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 분야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무관중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중계 등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문화창의산업 분야 역량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문화정책 설계 지원 및 지역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책을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로써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물안보 사업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10개국
2020년 현재 케냐 및 가봉에서 사업 추진 중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27년 10월
케냐 I 2019년 1월 - 2021년 6월
가봉 I 2020년 4월 - 2022년 3월



예산 : 미화 313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식수의 수질 등 물 관련 문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water security) 정책 수립 및 물 관리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 네트워크 및 한국의 유관 기관(i-WSSM⁵, K-water, 한국국제협력단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i-WSSM 센터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교육 사업과 동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물안보 및 물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는 국내에 설립된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 국제사회의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물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혁

동 사업은 현재 케냐와 가봉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2019년부터 지하수 관리 컨설팅 및 정책 제안, 공무원 초청연수 등의 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봉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기후변화 영향 검토, 스마트 물 관리 컨설팅 및 정책 제안 등의 주요 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 국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27년까지 케냐와 가봉을 포함하여 총 20개국의 물안보 및 물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6.5 국토부 제2차관 - 유네스코 부총장 간 공동연구에 합의
- 2016.10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국토부 - 유네스코 간 LOI(Letter of Intent) 체결
- 2017.10 국토부 - 유네스코 간 사업 약정서 체결 및 착수
- 2018.6 한국 정부 물관리 업무 조정에 따라 환경부로 관련 업무 이관
- 2018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⁶, 유네스코 Africa Plenary Session, 유네스코 아시아그룹 의장 등을 통해 잠정 회원국 대상 동 사업 홍보 및 의견 청취
- 2019 첫 대상 국가로 케냐 선정
- 2020 가봉 정부 의견 수렴 및 프로젝트 콘셉트 구상



2019년 3월 개최된 케냐정부 공동 프로젝트 준비 워크숍

6.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이란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4개의 자연과학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세계적인 물 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복지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64년 제13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마련된 190여 유엔 회원국 간의 범세계적 수자원계획 프로그램임.(출처: http://www.ihpkorea.or.kr/pro_01.html)

성과

- 한국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동 사업을 통해 물관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등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격차를 해소하고,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 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물 분야 입지 확대 및 물이슈 의제 선점에 기여할 것입니다.
- 한편 연구의 구상 단계부터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후속 국내외 ODA 사업의 발굴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 및 유관 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WSSM센터 국제교육 활동

코로나19 시대, ‘과학’ 분야 도전과제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 국가의 물관리 경험과 방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동기가 배제된, 과학적 사실과 추론에 기반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가 주도하여 비대면 기반의 오픈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도시봉쇄 등으로 인해 대도시 생활용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 산업용수의 경우 ‘수요절벽’에 직면하였고, 수처리 약품 단가 상승 등으로 물 공급업체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정부보조금을 고려 또는 지급하였으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경제회복이 더디게 될수록 물 공급업체는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 공급 중단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물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및 민간기업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도시봉쇄 및 재택근무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 능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앞으로 물 공급의 공공성 확보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IT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에 대한 국제 연구 및 보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과학’ 분야 자발적 기여 사업의 가치

전 세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청결한 손 씻기가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수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방역 및 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된 물안보 및 물관리 분야의 자발적 기여 사업은 수혜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 및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동 자발적 기여 사업을 추진할 때, 방역 및 위생 차원에서 수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내 물 공급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동 자발적 기여 사업의 수혜국 공무원 등 물 관련 종사자 교육 때, 본 사업이 K-방역 노하우를 전수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우수 대응 사례 등을 필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 물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와 협력하여, 물리적인 이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교육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미얀마 바간 사진 아카이브 보존 및 디지털화 사업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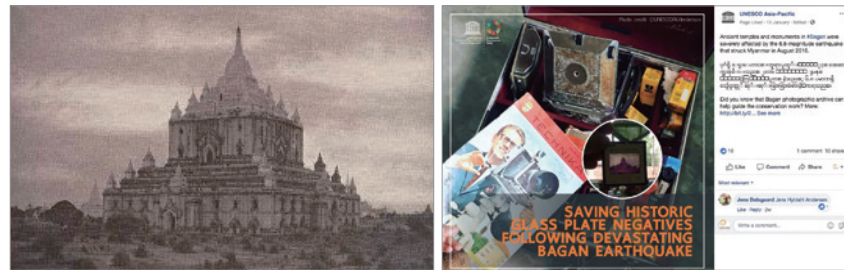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예산 : 미화 511,036불

배경 및 주요 내용

2016년 8월 미얀마에서는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간(Bagan) 지역의 고대 불교 유적지 대부분이 파손되어 복원과 보존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 유적지 복원 및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900~1920년대의 유적지 모습이 담긴 유리건판 필름 형식(glass plate negatives)의 '사진 아카이브' 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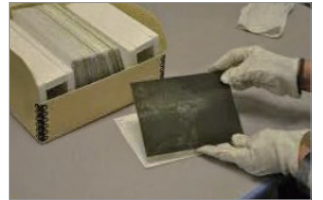
이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유네스코와 MOU를 체결하여 신탁기금 형태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동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미얀마 문화 유적지 복원 및 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록유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우수성을 전파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18.6 유네스코-국가기록원 신탁기금 양해각서 체결
- 2018.11 '바간 유적 보존을 위한 제3차 기술조정포럼' 개최
- 2019.1 미얀마 현지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개최
- 2020 사업 추진 중

성과

- 유리건판 기록물 관련 보존 및 디지털화 정책 개발
- 유리건판 기록물에 대한 보존상태 평가 완료
- 기록물 보존용 기본 재료 및 디지털화 장비 구매
- 미얀마 현지 인력에 대한 보존 및 디지털화 교육 실시
- 유리건판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 착수 및 추진
- 양곤 박물관 기록물관리 역량강화 과정 운영
- 디지털화된 사진기록물을 활용한 출판 및 전시(예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유네스코의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목표 중 하나인 '지식과 정보의 보존 및 접근성 보장 기여'를 달성하려면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핵심 기능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 지진으로 파손된 고대 불교의 중요 문화유산인 미얀마 바간 유적지의 복원을 위해서는 1900~1920년대 유적지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기록(유리건판)을 먼저 복원시켜 활용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록물의 시급한 복원 및 보존 처리, 그리고 디지털화까지의 사업을 유네스코를 통한 자발적 기여 형식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 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뿐 아니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발적 기여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해 미얀마 바간 유적지의 벽화 고증연구 및 보존 처리, 보존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문화 예술 실태조사의 산출물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문화지도 개발을 통해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



대한민국-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북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국

 사업기간 : 2011년 - 현재

 예산 : 미화 400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한국은 1988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신탁기금 형태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북한 지역 고구려고분군 보존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연구, 세계유산 역량강화 정기보고, 세계유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11.6 문화재청-유네스코 Framework Arrangement 서명
- 2012.9 '아시아 세계유산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체 참여' 심포지엄 개최
- 2012.10 북한 고구려고분군 사진전 개최(유네스코 본부)
- 2014.9 남아시아 실�크로드 연속유산 등재 워크숍 개최
- 2015.6 고구려고분군 벽화 보존 국제워크숍 개최
- 2015.12 실�크로드 연속유산 등재 관련 알마티 협약 체결

- 2017.4 평양 고구려고분군 현지조사
- 2017.12 '세계유산과 지속가능발전: 지역사회의 역할' 워크숍 개최(파키스탄)
- 2017.12 2차 신탁기금 사업 확정
- 2019.6 고구려고분군 벽화보존 사업(Phase 4) 착수
- 2019.12 인도 문화유산 보존 워크숍 개최

성과

- 고구려고분군 보존 지원
 - 약수리 고분 벽화 보존처리 지원, 관련 장비 제공
 - 고분벽화 보존 관련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실시('04 - '06)
 - 고구려 고분 국제 심포지엄 개최('04.10월/서울)
 - 누수현상 등 수산리 고분벽화 보존 처리 완료
 - 고구려 고분벽화 전시회 개최('12.10월/유네스코본부)
- 실�크로드 연속유산 등재 지원
 - 공동등재를 위한 정부간 조정위원회(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mmittee) 설치 및 운영(6회 개최)
 - 남아시아 실�크로드 등재 추진을 위한 부탄 현지조사 및 자문 1회
 - 남아시아 실�크로드 등재 추진을 위한 지역 워크숍 1회
 - 등재 관련 자문회의 운영 2회
- 세계유산 지속가능발전과 공동체 참여
 - 마클리 역사지구(파키스탄): 세계유산 관련 공동체 대상 전통 타일 제작기술 전승 및 개선 워크숍 3회
 - 라호르의 요새와 샨리마르 정원(파키스탄): 세계유산 관련 공동체 대상 전통 건축기술 전승 강화 훈련 워크숍 3회
 - 파하르푸르의 불교사원 유적(방글라데시): 세계유산 관련 공동체 대상 테라코타 제작기술 전승 및 개선 워크숍 2회
 - 하이데라바드(인도): 전통 건축 보존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아그라(인도): 공동체와 유산 관계망 파악 워크숍 1회
- 아태지역 세계유산 현황 제3차 정기보고 준비 지원
 - 제3차 정기보고('21년) 대비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19) 개최

- 고구려고분군 보존 지원 사업의 경우, 약수리, 수산리, 안악 3호분 보존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분벽화 보존을 위한 북한 문화재보존센터(KCPC: Korean Cultural Preservation Centre)의 역량강화를 실시했습니다.
- 동 사업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추진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지역에 위치하여 직접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고구려 고분과 고분벽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참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크로드 연속유산 등재 지원의 경우, 정부간 조정위원회를 통한 연속유산 등재 준비가 추진되었습니다. 남아시아 실크로드 관련 국가(네팔, 인도, 부탄, 중국)의 역량강화 또한 실시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아시아 지역 다국가 유산의 공동등재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실크로드 프로그램(<https://en/unesco.org/silkroad>)에 대한 기여를 통해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발전과 공동체 참여 차원에서는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의 연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전통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를 향상시킨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연계 사업은 세계유산 관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통기술 지원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지속가능발전의 병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합니다.
- 아울러, 동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아태지역 정기보고에 대한 지원은 세계유산 보유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 ① 국제전문가와 북한전문가가 수산리고분 배수로를 설계하는 모습
- ② 약수리 고분 벽화에 보호용 유리벽을 설치하는 모습
- ③ 수산리 고분 벽화의 보존 처리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섬·연안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생물권보전지역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원국
2020년 6월 기준 42개국 93개 지역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예산 : 미화 50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Programme: 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유사한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의 결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마드리드 행동계획」(MAP: Madrid Action Plan)⁷의 추진 전략에 근거하여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ICBR: World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의 창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스페인 메노르카와 함께 동 네트워크의 공동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동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 네트워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전략을 수립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 「마드리드 행동계획」은 2008년 2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장소가 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음

연혁

2012 1차 신탁기금 협약 체결(2013 - 2017)
프로젝트명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The Global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 Habita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acing Global Changes)

2017 2차 신탁기금 협약 체결(2018 - 2022)
프로젝트명
‘섬·연안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 as tools to reac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island and coastal areas)



2017년 9월 12일 개최된 2차 신탁기금 MOU 체결식



1



2

1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거리츠클러스터에서 열린 제9차 WNICBR 회의
 2 2019년 11월 제주도에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성과

- 네트워크 회원지역 증가: '12년 13개국 18개 지역에서 '20년 6월 기준 42개국 93개 지역으로 확대
-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 사업 추진(총 3건)
 - 1단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영향 사례 문헌 조사를 통한 취약점 분석(2015.3. 완료)
 - 2단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공통 취약점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2017.9. 완료)
 - 3단계: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써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가치(2020.5. - 진행 중)
- 회원지역 간 정기회의 개최(총 9회)
 - [1차] 2012.2. 스페인 메노르카
 - [2차] 2012.9. 대한민국 제주도
 - [3차] 2013.6. 에스토니아 서에스토니아 군도
 - [4차] 2014.6. 필리핀 팔라완
 - [5차] 2015.3. 몰타 아따르드
 - [6차] 2016.3. 페루 리마
 - [7차] 2017.9. 대한민국 제주도
 - [8차] 2018.5. 스페인 메노르카
 - [9차] 2019.9. 남아공 거리츠클러스터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개최(총 7회)
 - 총 인원: 33개국 48개 지역의 관리자 총 58명
- 제주도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공동사무국으로서 유네스코 본부 및 스페인 메노르카 사무국, 회원지역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인지도 및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적 환경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회원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 신규 지정 지역 및 개발도상국 지역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매년 제주에서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롤 모델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제로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등 주제별 회원지역의 사례들을 수록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e-뉴스레터 정기 발행,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회원지역 간에 유대관계를 강화,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말리 UNESCO 교육을 통한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말리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예산 : 미화 515만불

배경 및 주요 내용

말리에 사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불평등을 겪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가사노동, 빈곤, 교육시설의 부족, 자녀 모두를 교육할 수 없는 부모, 문화적 차별, 종교적 신념, 조혼 및 이른 임신에 따른 학업 중단, 성 교육 부족, 장애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부터 말리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개발 10년 계획'(PRODEC: Programme Décennal de Développement de l'Education)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여아 취학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정책의 실제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말리 보건복지부는 '보건 및 사회 개발 10년 계획'(PDDSS: Plan Décen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et Social)과 '성장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전략체계'(CSCR: Cadre Stratégique pour la Croissance et la Réduction de la Pauvreté) 계획을 채택하고 모성 아동 보건, 말라리아, 사회개발, 영양, HIV/AIDS 및 식수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말리는 2014년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감소를 촉진하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젠더 정책(Politique Nationale du Genre)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말리는 국가계획, 교육계획, 보건계획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성생식보건(SR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등 교육과 보건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 더 높은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동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을 통해서 말리 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생식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리 국가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말리의 사회적 발전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

- 비정규 기초교육에 접근 가능한 여성청소년 학습자의 수: 5633명
- 대상 학교 내 위생시설 및 깨끗한 물에 접근가능한 청소년의 수: 2325명
- 여아 교육 및 보건 플랫폼 구축 수: 1개
- 동 사업은 지역사회 접근에 기반해 말리 여성 청소년의 계속적 학업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적인 학업권 증진뿐 아니라 말리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지역사회 접근을 차단하여 사회안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말리 내 지속적인 테러리스트 활동 및 종교계의 성교육 관련 반발, 교사 파업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리더십 아래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말리 교육부와 보건부 및 동 사업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및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말리 여성청소년의 학업권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연혁

- 2015.9 'UN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Better Life for Girls) 구상 발표
- 2015.12 대통령 '유네스코 특별연설' 계기로 유네스코대표부와 유네스코 간 '소녀 구상' 관련 협력 합의
- 2016.2 유네스코 본부를 통해 사업제안서 접수
- 2016.2 대한민국 외교부 - 유네스코 간 협력의향서 체결
- 2016.6 한국국제협력단 - 유네스코 간 약정서 체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준비단계 지원

□ 교육 ■ **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 □ 문화 □ 정보·커뮤니케이션

 수혜국 :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회원국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예산 : 미화 387,539불

배경 및 주요 내용

2017년 제29차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이하 유네스코-IOC)⁸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이하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추진 결의안을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해양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SDG 14)의 달성을 위해 유네스코-IOC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전 지구적 해양탐사·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해양수산부와 유네스코-IOC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15.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14번째 목표(SDG 14)로 '해양' 설정
- 2016.6 제49차 유네스코-IOC 집행이사회에서 SDG 14의 달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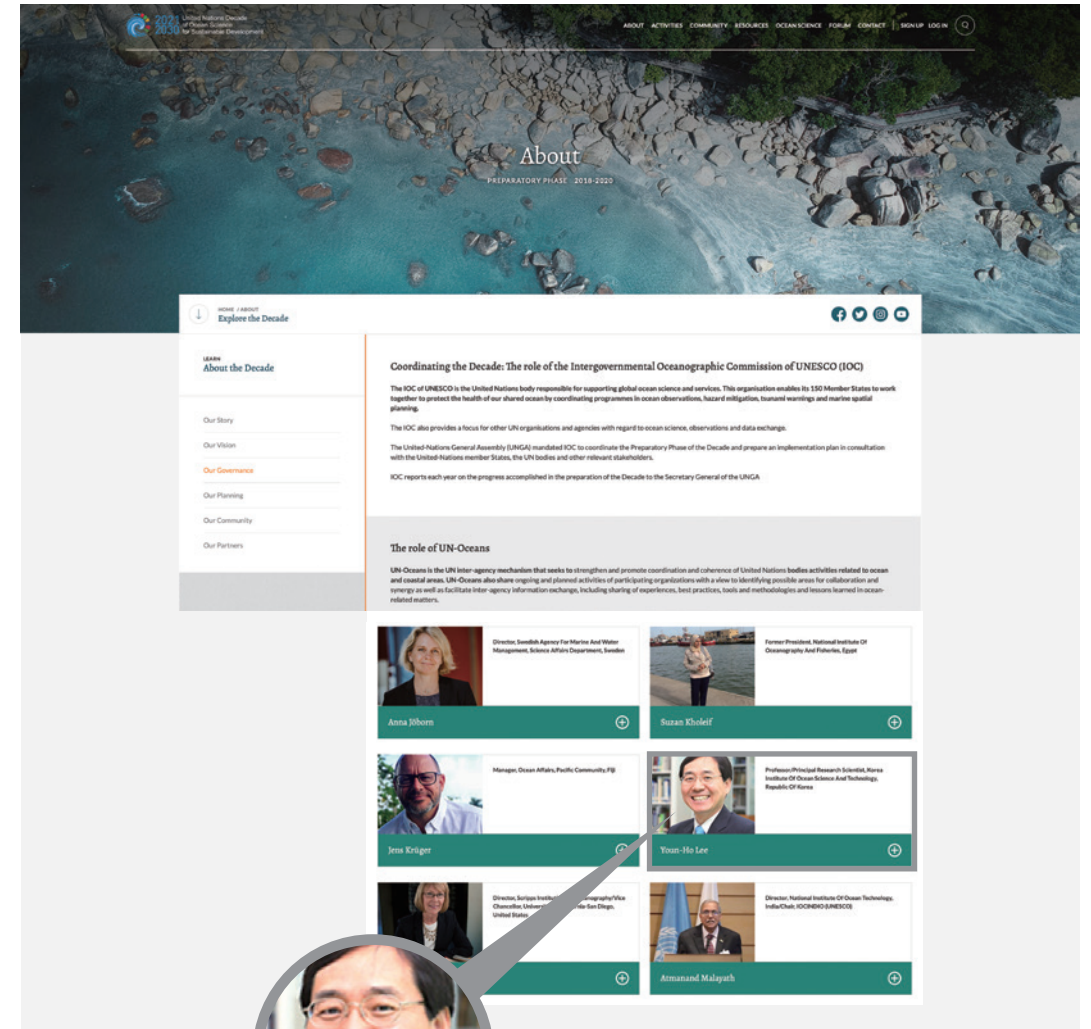
8.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로 현재 150개 회원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

- 2017.6 유엔 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 개최
- 2017.7 제29차 유네스코-IOC 총회에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추진 결의안 (한국, 노르웨이 발의) 승인
- 2017.12 유엔 총회의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승인 및 배포
- 2018.1 해수부-유네스코-IOC 간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준비단계 지원 MOU 체결, 유네스코-IOC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준비단계 지원사업 신탁기금 체결
- 2018.11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집행기획위원회 구성
* 한국 이윤호 박사 포함
- 2018.12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집행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프랑스 파리)
- 2019.5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글로벌기획회의의 1차 개최(덴마크 코펜하겐)
- 2019.8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태평양지역 워크숍 개최(일본 도쿄)
- 2020.1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집행기획위원회 2차 회의 개최(프랑스 파리)
- 2020.3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글로벌기획회의의 2차 개최(프랑스 파리)

성과

- 2018년: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및 유네스코-IOC GOSR (Global Ocean Science Report) 진도결과 보고서 작성
 - 2019년: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글로벌기획회의 보고서 작성
 - 2020년: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젊은 해양과학자 선발(3명)
 - 한국은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을 노르웨이와 공동 발의하는 등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가 2018년 유네스코-IOC와 MOU를 체결하고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재정·인적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 또한 유네스코-IOC의 150개 회원국 중 17개국만 선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집행기획위원회(Executive Planning Group)' 운영위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박사가 진출했습니다.
- *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호주, 스웨덴, 이집트, 뉴질랜드, 인도, 프랑스, 중국,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공, 일본, 독일, 푸에르토리코, 미국(3인) 등 총 17개국 19명 선정

-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집행기획위원회는 동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역워크숍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 국내 전문가가 활동함으로써 향후 국제 프로그램 사무소 유치 및 우리나라 주도의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집행기획위원회 위원 중 해양 분야 유수기관의 기관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선진 해양과학기관 및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현재 많은 유네스코-IOC 회원국들이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에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프로그램 사무소 유치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회원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양선진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국제 프로그램 사무소의 공동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동 사업에서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의 관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에서 '젊은 해양과학자' 대상자로 3인을 선발하였습니다.
- 이는 유네스코-IOC 내 젊은 과학자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차세대 리더십 양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선발 대상자는 향후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에서 논의 중인 의제를 분석한 후 우선 순위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획위원회 위원
이윤호 박사

출처: <https://www.oceandecade.org>

Chapter ③

코로나19 시대,
유네스코와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유네스코 본부 전략기획국



배경 및 주요 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조직의 전문분야별 임무와 역량에 따라 회원국들의 긴급한 우선순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코로나19 발발 초기 단계부터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유네스코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은 유엔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기조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에 집중하였습니다.

목표

원격학습 수단 및 가용한 교육·정보·지식 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강화하며 학교봉쇄에 따른 영향에 주목

과학 분야 연구와 협력에 있어 도덕성,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등의 원칙 지지

혁신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유네스코 전문분야별 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과 계획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분야를 회복시키고, 해당 사회 내 결속력을 증진하기 위해 교사 및 문화·미디어 전문가들의 역할과 지위 보호 및 증진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성평등,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배제, 불평등 및 차별에 대응

언론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언론매체 및 기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정보 제공

교육, 문화, 과학 및 정보 등의 기본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공동의 헌신과 모범 사례 공유를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강조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방식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는 다음의 네 가지 활동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기구 및 파트너들의 비교우위와 가용자원을 활용한 국제협력 및 고위급 정책대화 동원

- “코로나19 글로벌교육연대” (COVID-19 Global Education Coalition) 출범 후 전 세계 150개 정부기관, 다자기구, 민간부문 파트너들을 규합하여 성평등, 교사, 온라인 교육 등에 관련한 핵심 이니셔티브 제시

“ResiliArt” 글로벌 운동을 통해 예술가 및 창작 부문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예술의 장래에 대해 성찰

- 장관 및 고위급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이슈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대화채널을 수립하고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
 - 각국 교육부 장관 간 지속적인 정책대화와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교육장관회의 개최 및 특별장관그룹 구축(총 3회 모임 추진)
 - 문화장관회의 개최, 지역 정부간기구 및 개발은행과 회의 개최
 -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및 오픈사이언스 장관급 네트워크 운영
- ‘세계 언론자유 날’ 계기 코로나19 관련 고위급 대화 개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장 미첼 바첼렛 참여)

애드보커시 및 인식 제고 캠페인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에 관한 주간 웨비나 개최를 통해 각국의 대응 모범사례, 아이디어 및 자원 공유
-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부문 활동의 일환으로 ‘포용’에 관한 웨비나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경험과 기술 공유
- #learning never stops 캠페인 전개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 지원 및 촉진
- ‘세계 언론자유 날’ 계기 인식 제고 캠페인 전개(2020년 5월 3-4일)
- #YouthOfUNESCO의 일환으로 “MyCOVID-19Story” 캠페인을 전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청년들의 혁신적인 활동 소개
- 유엔 사무총장 주관 글로벌 #WithHER 캠페인 참여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 예술가들의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한 #DontGoViral 인식 제고 캠페인 전개

- 기타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캠페인 추진
(#shareculture, #shareourheritage, #shareinformation #shareeducation)

이 밖에도 유네스코는 #learning never stops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keeping girls in the picture’ 캠페인 전개를 통해 향후 등교 재개 시 여학생들의 학습권과 등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on.unesco.org/girlsbacktoschool>)

유엔 지속가능발전 협력 프레임워크(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s) 등에 기반하여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 지원 제공

- 국가 차원의 맵핑 및 평가 활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의 재건 지원
 - 교육시스템 평가
 - 세계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내 생태계 회복력 측정
 - 과학, 기술, 혁신 정책 및 전략 맵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정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 및 분석

- 학교 폐쇄 및 세계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시하는 지도 제공
 -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
 - <https://en.unesco.org/covid19/cultureresponse/monitoring-world-heritage-site-closures>
- 정책브리프 및 가이드라인 발간
 -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및 세계은행과 “Framework for Reopening Schools” 공동 발간
 - 유네스코 코로나19 글로벌교육연대의 젠더 플래그십 활동의 일환으로 “Building Back Better: Girls Back to School Guide” 편찬, 이를 통해 성인지(gender-responsive) 조치들을 적용하여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우선시하며, 여아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응할 것을 주장

- 유네스코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https://en.unesco.org/covid19>)를 통해 관련 온라인 도구, 기술 자원 및 정보허브를 구축, 문화 부문에서의 코로나19 피해와 국제·지역·국가 수준에서의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Culture & COVID-19: Action and Response Tracker)을 통해 공유

파트너십의 동원은 유네스코가 코로나19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기존 공여자 및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명료하게 소통하였으며 새로운 공공 및 민간부문 파트너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공여자 및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도전과제들과 회원국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자발적 기여를 통해 지원한 프로젝트와 활동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등은 한국의 공여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사업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사업’, ‘말리, 네팔, 탄자니아 내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등과 같은 한국의 교육 부문 자발적 기여 사업들은 일부 조정을 통해 코로나19가 수혜국의 교육 시스템에 미친 피해에 대응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2단계)’의 경우, 사업 담당자, 운영기술위원회 및 국가 당국이 긴밀히 협의하여 각 수혜국의 국가 비상 대응 계획에 맞춰 사업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과정에 통합시키고, 교사 및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에 디지털 역량 부문을 포함시키며, 디지털 자원의 배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기술 게이트웨이(gateways)를 동원하는 것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사업(1 단계)’의 수혜국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함에 있어서 동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전문성을 활용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도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식, 자원,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상호학습과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예컨대,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르완다의 온라인학습 플랫폼은 유네스코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공유되었으며, 이와 함께 동 사업의 가시성도 제고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2단계 수혜국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교육 부문 코로나19 대응 방향에 맞춰 사업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혜국 내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었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국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봉쇄된 상황에서 원격학습 솔루션의 효과성과 교육제도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대화형 오디오 교육(Interactive Audio Education)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말리, 네팔, 탄자니아 내 여성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했습니다.

이니셔티브



동 사업의 수혜국 정부가 원격교육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 학습자, 특히 여성 학습자들이 라디오 및 TV 기반 수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위생수칙을 알리기 위해 관련 인식 제고 방송을 기획하고 송출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여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



해당 정부의 포용적 등교 재개(inclusive school reopening) 전략 수립 지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전 세계 고등교육 시스템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자발적 기여 공여주체들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활동들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비롯한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해당 수혜국 내 학교들의 대응 활동이 사업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교전체적 접근에 관한 교사 및 학교지도자 실무지침서(Practical Guide for Teachers and School Leaders on Whole-School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가 발간될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 교사 및 학교 지도자들을 대상에서 동 지침 관련 역량강화 연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코로나19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과 교육 인증에 관한 여러 출판물과 웨비나를 제작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는 한국의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ResiliArt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온라인 협의를 개최하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협의를 통해 문화 분야 및 창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실천 사례들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는데, 봉쇄와 고립을 통해 얻은 교훈,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를 지지하는 모델 개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문화·창의 산업의 역할, 코로나19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예술가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지역 국가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차원에서 유사한 온라인 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도전과제들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세안 지역 정책입안자 워크숍에서도 다루질 예정입니다.

유네스코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계유산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조정했습니다. 현장 활동과 워크숍 등은 연기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책을 모색했습니다. 예컨대,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료 및 자원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으며, 관련된 특별 온라인 세션과 격주로 'Clinic Hour'라는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의 화산섬 지역 유산 관리자 및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의 세계유산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shareOurHeritage 캠페인에 참가했으며, 제주도의 세계유산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네스코의 전문분야와 활동이 갖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위급 정책입안자들과 파트너들을 신속하게 동원하며 행동 지향적인 연대체계를 구축하는 유네스코의 역량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목록

(2019년 기준, 사업별 총 예산)

출처: 유네스코 투명성 포털

01 Advancements needed for the Asia-Pacific region to achieve the targets set under SDG4 - Regional publication US\$ 70,000

02 Bamiyan Cultural Centre US\$ 5,472,209

03 Bamiyan Cultural Centre (Phase II) US\$ 1,912,449

04 Bamiyan Cultural Centre (Phase III) US\$ 3,496,272

05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2 (BEAR 2) US\$ 10,000,000

06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BEAR) US\$ 10,000,000

07 Better Life for Out-of-School Girls to Fight Against Poverty and Injustice in the Philippines US\$ 6,000,000

08 Biodiversity research, training and manage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 126,440

09 Biosphere Reserves as tools to reac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island and coastal areas US\$ 532,728

10 Buddhist Heritage Route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South Asia US\$ 450,000

11 Capacity-Building Ahead of the Third Cycle of Periodic Reporting in Asia and the Pacific US\$ 350,055

12 Costing and Financing SDG4-Education 2030 in the Asia-Pacific Region US\$ 360,000

13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for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creative industry in Mongolia, Vietnam and Uganda US\$ 469,600

14 Developing Regional Quality Tools to Facilitate the Cross-Border Mobility of Students in Asia and the Pacific US\$ 1,000,000

15 Developing TVET Policies Designed to Increase Skills for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n Alignment with National Economic Plans US\$ 50,000

16 Eabrn 2019-2020 US\$ 100,000

17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advancing the Lima Action Plan US\$ 100,000

18 Educational Innovation for Promoting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n Asia-Pacific: Facilitator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S\$ 495,050

19 Educational Innovation for Promoting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n Asia-Pacific: Implementing Regional Quality Tools to Facilitate the Cross-border Mobility of Students US\$ 990,099

20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through Education in Mali US\$ 5,000,000

21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through Education in Tanzania US\$ 5,000,000

22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through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a Safe Learning Environment in Nepal US\$ 5,000,000

23 Enhance the Capacity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Genetic Analysis on Marine Organisms in the Coral Reef Ecosystems in the Western Pacific - Second Phase (DRMREEF- II) US\$ 133,132

24 Enhance the Capacity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Genetic Analysis on Marine Organisms in the Coral Reef Ecosystems in the Western Pacific - Third Phase (DRMREEF- III) US\$ 130,435

25 Enhancing National Capacity for Results-Based Budgeting for Better Education Results in Asia-Pacific US\$ 100,000

26 Enhancing National Capacity to Foste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in Asia Pacific US\$ 1,500,000

27 Exploring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nd partnerships for ensuring fre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pre-primary education for all in Asia-Pacific US\$ 70,000

28 Financ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ector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US\$ 100,000

29 Global Ocean Science Report Portal US\$ 93,104

30 ICT Transforming Education in Africa US\$ 6,000,000

31 ICT Transforming Education in Africa - Phase II US\$ 1,980,198

32 Innovative Financial Planning in Technology-Enabled Education to Achieve SDG 4 in Asia-Pacific US\$ 120,000

33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JPO (Korea) for Gender Equality US\$ 120,955

34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JPO (Korea) for Gender Equality US\$ 210,604

35 Korean JPO for Organizational Design, Post Management & Classification
US\$ 156,449

36 Korean JPO to assist the work of the Section for Partnerships,
Cooperation and Research (ED/PCR) US\$ 252,828

37 Korean JPO to assist the work of the Section for Partnerships,
Cooperation and Research (ED/PCR) US\$ 233,937

38 Korean Secondment on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US\$ 743,218

39 Korean Secondment on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US\$ 181,300

40 Preparing Teacher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S\$ 1,000,000

41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Koguryo Cultural Heritag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US\$ 1,000,312

42 Preservation of Koguryo Tombs and Mural Painting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ase IV) US\$ 820,736

43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in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US\$ 1,000,000

44 Promo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ensuring environmental security
and sustainable growth in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US\$ 80,000

45 Provision of TVET and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Youth Affected
by the Syria Crisis in Jordan US\$ 1,000,000

46 Provision of TVET, On-the-Job Training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Youth Affected by the Syria Crisis in Jordan US\$ 1,000,000

47 Provision of TVET, On-the-Job Training,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Youth Affected by the Syria Crisis in Jordan (Phase Four) US\$ 1,000,000

48 Regional Strategy and Planning Toolkit to Shape Up ICT-Supported
Lifelong Learning for All US\$ 70,000

49 SDCI Phase II US\$ 769,741

50 Secondment from Republic of Korea to UNESCO US\$ 864,286

51 Secondment from the Republic of Korea of Mr. Kim US\$ 480,169

52 Secondment of a Programme Specialist from ROK to the World
Heritage Centre US\$ 449,432

- 53 Secondment of Mr Jaehyun Ryu to UNESCO Bangkok
(KFIT Programme Coordinator) US\$ 201,619

- 54 Secondment of Ms Jihye Hwang to UNESCO Bangkok
(Associate Programme Specialist in Education) US\$ 381,449

- 55 Secondment of Ms. Yi Yang-Ju to UNESCO Bangkok
(Programme Specialist in Education) US\$ 386,839

- 56 Senior Programme Specialist (P5) Secondment to Hydrology Division
(Theme 4: Water for Human Settlements) US\$ 511,867

- 57 StartUp Ocean Decade US\$ 140,017

- 58 Strengthening costing and financing of SDG 4.2 in the Asia-Pacific Region
US\$ 69,734

- 59 Strengthening cultural industries in Lao PDR, Uzbekistan and Rwanda
US\$ 414,000

- 60 Strengthening film industries in Central Asia US\$ 200,000

- 61 Strengthening regional and national capacities to develop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for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Asia/Pacific
US\$ 414,000

- 62 Support for Adult Literacy in Afghanistan US\$ 1,750,458

- 63 Support for the Asian Silk Roads World Heritage Serial and Transnational
Nomination(s) (phase II) US\$ 350,000

- 64 Supporting Competency-Based Teacher Training Reforms to Facilitate
ICT-Pedagogy Integration US\$ 1,145,608

- 65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n Innovation Acceleration Platform -
Science Park and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in Indonesia and Namibia
US\$ 350,000

- 66 Supporting the Post-Disaster Recovery of the Bagan Archaeological Area
and Monuments through the Preserv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Bagan
Photographic Archive US\$ 511,036

- 67 Support to national capacity building to realize Girls' Right to Education in
Punjab and Gilgit-Baltistan US\$ 3,400,000

- 68 Support to the Preparatory Phase of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activities
US\$ 129,000

- 69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unity Involvement Initiatives (SDCI)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S\$ 600,065

70 Sustainable Water Security for Human Settle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under Climate Change US\$ 3,130,000

71 Timor-Leste Quality Education for All - 3rd Cycle Math and Science Curriculum US\$ 2,013,857

72 Tuol Sleng Genocide Museum Project US\$ 1,189,786

73 Youth Empowerment through TVET US\$ 3,000,000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기획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음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주소 (045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연락처 02-6958-4100
FAX 02-6958-4250
전자우편 kocom@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감수/편집 서현숙, 이영은
교열 송영철
번역 (주)크리덴셜
디자인 보더랩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이 책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0년 외교부의 지원으로 제작한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소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91190615068(0334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IR-2020-BK-1